

齒協 30年史

第1次 資料 蒐集草稿

資料篇 (5~1)

齒協歷史編纂委員會 提供

□ 全北道齒定期總會 □

全羅北道齒科醫師會의 1948年度 定期總會는 4月 1日 (1948) 裡里府 新興洞 白美齒科醫院 2層에서 來賓 全北保健厚生局長, 同醫務課長, 同藥務課長, 同藥務課主任과 會員林澤龍, 崔三涉, 蘇眞敬, 印柱英 (以上 全州) 李敏五, 劉時仲, 姜京善, 田基培, 羅庚南 (以上 群山), 尹箕斗, 崔希烈, 金永義, 金炳郡 (以上 裡里) 鄭潤鈺 (井邑) 韓鏡洙 (茂朱) 鄭完順 (參禮) 등 參席下에 開催하였는데 總會狀況은 다음과 같다.

總會는 定刻보다 約 1時間 늦게 下午 2時 尹箕斗司會로 開會를 宣言하고 이어 國民儀式이 있는 다음 崔三涉會計幹事로부터 出席 20名 (委任狀 4名 包含一缺席 7名) 으로 總會成立을 宣言, 林澤龍委員長이 議長에 就任하여 『總選舉를 앞두고 多忙中 더구나 雨中에 來賓諸位와 多數會員의 出席에 對해서 感謝한다』 前提하고 藥配給件, 朝齒臨時總會經過報告, 醫齒一元化問題, 서울·京城兩齒科醫師會 不統一에 關聯한 朝齒副委員長辭表提出 經緯, 朝齒의 定期總會 其他에 關한 通牒等 詳細한 報告를 兼한 開會辭가 有은後 崔三涉의 會計報告와 藥務課長으로부터 國內製藥狀況, 美國藥品配給實情, 公平하고 圓滿한 配給을 爲한 民需物資對策委員會 組織등에 關한 講演이 끝나자 朝齒定期總會에 派遣할 代議員問題에 對해서 『우리들은 서울, 京城兩齒科醫師會의 싸움을 또 다시 보고 싶지않다. 따라서 兩會가 統一되지 않는限 代議員을 派遣하지 말자』는 印柱英動議를 採擇, 그러나 委員長林澤龍은 朝齒副委員長辭任을 不受理한단치 個人資格으로 參席하기로 決定한 다음 討議事項에 들어가자 『資材配給及藥品配給件』을 上程한즉 今般 美國齒科機材配給에 對한 不平이 沸騰한가운데,

崔三涉—우리는 齒材會社依存을 一蹴하자. 고 絶叫하니 『울소 울소』 소리가 議場을 震動

林澤龍—우리들은 美國齒材殘品 處理場所가 아니거늘 이런 配給은 받을 수 없다. 546百餘圓配給에 『바—』가 346百餘圓이라는 것은 너무나 不當하며 既成合金冠 등 抱合은 良心의 齒科醫師를 無視하지 않는다면 配給할 수 없을 것이다.

羅庚南—齒材會社를 뺀이갓트하자.

鄭潤鈺—뺀이갓트보다 靜觀하는 것이 어떠한가.

印柱英—靜觀도 程度問題다. 全州道立醫院은 2萬7千餘圓配給에 바—가 1萬8千9百餘圓이니 이런 配給은 道立醫院의 使命을 沒却한 種族들이 아니면 할 수 없을 것이다. 要컨대 그것은 純全한 營利主義이며 殘品處理場所로서의 處事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런 配給에서 바—만 除外해달라 하였으나 拒否를 當했다.

崔希烈—國內生産機關이 없어서 外國品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는 此際이니 配給을 받고 안받는 것은 個人的意思에 一任하는 것이 如何? 이것도 弱少民族의 悲哀다. 齒材會社를 論駁해보아야 別無所用일 것이고 큰 期待도 어려울 것이다.

印柱英—그러나 우리들의 意思를 傳達할 必要는 있다.

金永義—配給을 받아보니 바—도 쓸만한 것이 別로 없었다.

韓鏡洙—配給एं글은 돌지도 않는 中古品이었다.

崔希烈—그러면 建義하여 反省을 要求하자.

는 動議에 再講, 三講으로 『齒材會社의 反省을 要請』 하기로 可決하고 『藥品配給』에 對해서는,

李敏五—民需物資對策委員會가 組織되면 藥品配給을 좀더 생각해주면 좋겠다.

藥務課長—民需物資對策委員會에는 道齒科醫師會長도 參與하니간 잘 할것이며 또 잘하도록 하겠다.

劉時仲—지금까지의 配給을 볼때 不公平한일이 많아서 그 不當性을 말해왔던 것이다. 公平하고 圓滿한 것

이 配給의 目的이라면 過去에 있어서 種類로나 量으로나 差別이 甚했던 것을 是正하도록 當局에 要望한다. 例컨데 『페니시린』을 醫師에게는 7,80個式주게 되었는데 齒科醫師에게는 25個를 配給한다니 差別이 아니고 무엇인가. 口腔外科에 『페니시린』은 用途 및 必要性이 많은데 同等하게는 못줄지언경 醫師의 半以上은 配給할 것이 아닌가. 따라서 當局의 善處를 바라는 바이다. 配給率을 醫師對齒科醫師의 職權上으로 差別하는 것은 卑劣하지 않은가 生覺한다. 差別은 專制主義가 打倒되고 民主主義를 부르짖는 이때 反省할 必要가 있을 것이다.

藥務課長—(웃으면서) 大端한 攻擊이다. (議場에도 笑聲) 醫師會나 産婆會에서도 攻擊을 받으나 差別待遇는 秋毫도 없다. 使用目的에 依해서 配給하는 것이면 이번 配給은 試驗의이다. 齒科에서 더 必要하다면 改正할 수도 있는 것이며 配給의 割當技術이 齒科醫師, 醫師, 産婆 등 三者로부터 다 歡迎받게 되기는 어려운 것이다.

고 말한後 昨年 各道藥務課長會議때의 適切配給을 爲한 討議願末을 詳述하고 끝으로 『私心없이 잘하겠다』 言明.

劉時仲—廣木包裝같은 것은 똑같이 必要한 것인데 醫師 7 齒科醫師 3의 比率는 어찌된 것인가.

藥務課主任—辨明같지만 그것은 會社에서 그와같이 割當해온 것이다.

나, 『金配給에 對하여』를 上程, 林議長으로부터 朝齒公文에 對한 說明이 끝나자 李敏五, 崔希烈 등이 稅率制 金配給의 不當性을 指摘한 다음

印柱英—開業年限이니 納稅證憑書類이니 할 것 없이 金配給은 均等하게 할 것이다.

라고 均一制 金配給을 熱烈히 主張하고 李敏五는 等級制를 力說應酬.

林議長—等級制보다는 均一制가 좋다고 생각한다. 定期的配給이 아니고 가물에 콩나기로 1년에 한번쯤 주는 것이니 차라리 均等히 配給함이 圓滿할 것이다.

崔希烈—어차피 配給은 不足한 것이니 均等配給이 至當할 것이다.

尹箕斗—萬若 等給制로 差別을 한다면 新規開業에 多量配給할 것이다.

韓競洙—第2回 金配給에 있어서 他道限地 齒科醫師는 受配量이 80g인데 全北의 限地 齒科醫師는 40g을 받았다. 그 不當性을 齒醫務當局에 말한즉 金配給이 不足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는 要領不得의 答辯이 있었다. (笑聲) 그리고 나는 第3回 金使用許可證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配給을 받지 못하고 있다. 1月末日限의 金使用許可證을 1月 30日 下午에 接受하였는데 메마침 感氣로

子息(中學生 18歲)에게 金使用許可證과 同接受日時를 證明한 郵便局長의 證明書를 携帶시켜서 1月 31日 下午 2時車로 서울을 가게 하였었다. 2月 1日은 空日임으로 2日날 地金課에 갔더니 配給할 金이 없다고 拒絶을 당하여 齒醫務課長에게 그 緣由를 말한즉 財務部에 連絡한後 『이번에는 시원치 않으며 다음 配給이 곧 있을 것이니 간 페니 旅費만 쓰지 말고 가라』고 말하였다한다. (滿場笑聲) 이 事實은 偶然한 機會에 警察도 알게 되어 調査를 했으니간 아마 調査가 서울로 갔을 것이다.

鄭完順—나는 金使用許可證을 1月 28日에 받아가지고 同 31日 地金課에 接受만 시켜놓고 2月 2日에 金配給을 받았다.

結局 金配給은 等級制를 撤廢하고 均一制로 할 것과 韓競洙問題를 解決하도록 建議할 것을 可決하고 다, 『齒科運營에 對하여』 討議에 들어가 崔三沙 幹事로부터 醫療報酬規定草案 朗讀이 있은다음 逐條審議하여 拔齒科 3百圓以上 總養齒上下에 1萬5千圓 其他等 通過시키고 <페니시린>은 1千5百圓以上을 받으면 違法이라는 道當局者의 注意가 있어서 1千5百圓으로 할 것을 採擇하였다.

끝으로 라. 『其他事項』에서 尹箕斗, 李敏五 등으로부터 無免許者의 齒科醫師類似行爲에 對한 取締方針을 質問.

醫務課長—一般社會狀態와 더불어 混亂中에 있는단치 積極的取締은 못하고 있으나 알려주면 取締하겠다. 那이나 面에서 取締이 되지 않을 때는 道로 連絡해주시기 바란다.

崔希烈—麻藥取扱에 있어서 그 手續을 簡便化할 수 없는가.

醫務課長—統計報告는 麻藥患者防止가 目的이다. 麻藥을 사고 안사고間에 每月 報告하기 바란다.

는 答辯이 있은後 鄭潤鉦으로부터의 井邑支部設置要望을 考慮하기로하고 下午 4時 萬歲三唱裡에 閉會, 이어 同席에서 懇親宴이 있었다.

□ 忠北道齒定期總會 □

忠清北道齒科醫師會의 1948年度 定期總會는 4月 10日 (1948) 下午 2時半부터 淸州道立醫院 會議室에서 開催하여 먼저 國民儀式이 있은다음 開會辭에 朴昌熙, 會長 人事에 李世根, 來賓辭辭에 忠清北道醫務課長, 이어 各部報告에 들어가 趙鎮銜의 庶務報告, 金書記의 會計(決算及豫算) 報告, 金正泰의 資材報告 등 一瀉千里로 進行되고 討議事項中 <敵産處分> 問題로 小波瀾이 있었으나 同 6時 圓滿裡에 閉會後 別席에서 懇親宴이 있었는데 出席者 및 總會狀況要旨는 다음과 같다.

出席者(無順) 淸州 李世根, 朴昌熙, 金正泰, 趙鎮銜,

許甲伊, 忠州 崔德昌, 尹成龍, 堤川 李元夏, 永同 鄭五相, 長湖院 柳大奎, 槐山 李明珪, 鎮川 周元根, 陰城 韓昌源

▲ 討議事項 가. <今年度事業에 관한 件을 上程하자 李世根議長으로부터 昨年度 口腔衛生強調週間中の 業績이 훌륭하였던 것을 詳述하고 檢診에 不치지 말고 處置까지 하자는 鄭五相提議를 異議없이 可決하였으며 이 事業推進上 厚生局의 公文으로서 學校 및 學父兄과의 連絡을 緊密히 하라는 李元夏要請을 醫務課長이 快諾했다.

나. <民需物資對策委員會에 관한 件 2他道同委員會에 는 齒科醫師會長이 參與하여 公平하고 圓滿한 配給을 하게 되었다는데 忠北은 어져 되었는가에 <아직 組織되지 않았으나 그런 境遇에는 貴意를 尊重하여 잘 하겠다>고 醫務課長答辯.

다. <無免許者에 對한 當局의 意見聽取>에서 李元夏로부터 <그네들의 生活를 爲해서 是 막을 수 없으나 國民保健上 默認할 수도 없는 形便이다>는 發言에 이어 李世根—現在는 中止하고 있으나 醫師로서 無免許者를 雇傭하여 齒科部를 設置한 沒常識의 行爲도 있었으며 齒科醫師가 있는데도 不拘하고 未熟한 拔牙으로서 患者를 울리는 例가 있었다.

韓昌源—그런 行爲는 醫師 10人中 5人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醫務課長—齒科醫師가 있는데도 不拘하고 醫師가 그런 行爲를 한다는 것은 좋지 못한 일이며 無免許者는 取締하게 되어 있다. 各面에 無免許者를 報告하도록 되어 있는데 報告하지 않는 면도 있고 無免許者가 있다하여 課長이 出張하면 없었던 일도 있다. 如何間 徹底히 取締할 方針이니 無免許者의 住所姓名을 通知해 주기 바란다.

는 要請에 李元夏는 保留할 것을 主張하고 李世根은 <摘發者는 (다리를 가리키며) 이것이 성치 못하게 되기 쉽다>하니 滿場笑聲.

醫務課長—無記名으로 摘發하면 그만일 것이다. 今年부터는 無免許者를 告發하게 되었으니 協力하라.

는 말에 無免許의 醫療行爲者를 無記名으로 通知할 것을 採擇했다.

라. 敵産處分報告에 들어가기 전에 朴昌熙, 李元夏間에 敵産處分에 對한 質疑應答이 有은後 李明珪要請으로 <解放後 日人齒科醫에게 機材代金を 支拂하였는데 昨年에 또한번 敵産管材處에 支拂한 經緯>를 李世根 詳述하자.

趙鎮衡—두번 사게 된 根源이 나에게 있다 하였으나 그것은 誤解다.

하며 敵産을 사게 된 動機其他를 興奮滿面하여 反駁한 즉 李世根도 亦是興奮하여 應酬하니 議場이 騷亂한가운

데 尹成龍外 數名도 不平을 連發하였으나 李元夏提議의 <討議中斷>을 採擇함으로써 危機를 冒免했다.

마. <資材之件이> 上程되자 美國齒科機材配給과 齒材會社에 對한 不滿이 續發.

許甲伊—齒材會社社長말을 들으니 齒色標本같은 것은 陶齒로 配어 쓸 수 있으며 配—는 材料商에서 希望品과 交換할 수도 있다고 한다는 發言이 있었으나 <그것은 空虛한 商術이다>라고 一笑에 부치고 結局 齒科機材의 抱合配給을 하지 않도록 建議할 것과 金配給은 均一制로 할 것을 建議하기로 可決한다음 <마. 其他事項>에서 來年定期總會는 忠州에서 開催할 것과 助手採用은 協調的으로 할 것等を 各各 可決, 끝으로 朝齒定期總會에 派遣할 代議員으로 李元夏, 趙鎮衡, 尹成龍등 3名을 選出하고 散會하였다.

□ 忠南道齒 第3回定總 □

忠清南道齒科醫師會의 第3回定期總會는 1948年 4月 11日 下午 3時부터 大田府元洞 厚生會館 2層 會議室에서 來賓에 忠清南道閔保健厚生局長, 同鄭齒務係長, 大田府 保健係長, 柳醫師會長, 朴藥品會社長 其他 數名과 會員 大田 任胃懌, 張 博, 朴三用, 鄭奇永, 柳秉呂, 天安 洪 豊植, 黃泰鍾, 元夷喜, 溫陽 金鍾聲, 禮山 申昌均, 江 景, 方思郁, 長項 朴成實, 論山 金鍾善, 鳥致院 成樂 斌(委任狀 1)등 參席下에 開催, 張博司會로 國民儀式이 有은다음 任胃懌會長의 開會辭, 厚生局長과 醫師會長의 來賓祝辭가 有었고 經過報告에서 鄭奇永의 庶務報告, 朴三用의 會計報告가 끝나자 朴成實의 質疑가 展開되어 開會勢頭부터 議場이 緊張하였다가 鄭·朴兩理事의 誠實한 應答으로 平穩을 되찾은 가운데

任議長—任員改選을 하기前에 할말이 있다. 前提하고 約 1時間에 걸쳐 厚生當局者들에 對한 不滿을 吐露하며 厚生當局의 冷待를 誌難한後 <任會長>에 對하여 厚生 局長이 <張會長>이라 呼稱한것 等に 對한 獅子吼로 議場은 또다시 緊張.

閔厚生局長—藥配給에 있어서 齒科醫師에 關心을 갖지 않고 考慮하지 않은 것만은 事實이다. 來日부터라도 美國人顧問과 議論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是正하겠으니 너무 過去를 追窮 말고 앞으로 協調하자.

鄭齒務係長—任會長이 憤慨하여 神聖한 總會席上에서 厚生局長을 論難하는 것은 不當하다. 主로 藥配給의 不滿인데 이것은 相互間緊密한 連絡과 協調가 없었던 까닭이다. 昨年 臨時總會以後 齒科醫師會로부터 何等 相讓도 없었던 것이다.

結局 談事를 速히 進行시키자는 發言이 連發되어 <任員改選>에 들어가 會長, 副會長을 無記名投票로 選出할 것을 採擇하여 會長에 任胃懌 14票, 副會長에

朴三用 9票, 同 朴成實 12票로 各各 當選하고 任會長으로부터 張博, 鄭寄永, 柳秉呂등을 理事로하자는 提議를 可決하였는데 朴三用은 限死코 副會長就任을 拒否하여 議場이 騷亂한 가운데 任議長이 休會를 宣言(下午 6時半)하고 懇親宴이 있은後 下午 8時 續開한자리에서 朴三用은 辭意를 再表明하고 甚至於 任會長の 辭任까지 促求하면서 某를 會長으로하자고 提言하고 <某를 會長으로하지 않는한 圓滿한 配給을 爲한 當局과의 折衝에 支障이 있을 것이고 會運營上에도 困難할 것이다>라는 極言에 <某를 會長으로하여 配給을 많이 받는 것보다 任會長을 支持하여 配給이 많지 않아도 甘受하겠다>는 動議와 再請에 任會長 感激하여 <여러분의 公僕으로서 힘껏 奮闘할 것>을 言明하였다.

討議事項에 들어가기 前에 無斷退席한 某를 總議로서 呼出하기로 되어 朴三用이 그 使命을 가지고 갔었으나 某는 參席을 拒否하였다는 말에 不得已 그레로 議事를 進行, 資材配給件에 對하여는 中央의 申寃書를 支持하기로 可決하고 醫療報酬中 治療費 1百圓, 其他등을 決定한後 朝會定期總會에 參席할 代議員으로 李景萬, 洪豊植, 方思郁, 金鍾聲등 4名을 選出, 밤 9時半 閉會하였다.

□ 慶北道齒 第 3 回定總 □

慶尙北道齒科醫師會의 第 3 回定期總會는 1948年 5月 15日 下午 1時부터 大邱公會堂에서 來賓慶尙北道保健厚生局醫務課長 申海淳外 新聞記者 3名과 會員 李斗榮, 金永祚, 崔海雲, 秋章輝, 具滋喆, 崔翔華, 郭學台, 白龍鳳, 金鏞泳, 具滋益, 崔俊卿, 李源大, 金鍾來, 姜信文, 金永三, 徐永圭, 郭甲植, 卞鍾秀, 金壽福(以上 大邱) 徐斗元(慶山) 秋貞輝, 崔壽卿(永川) 金洛先(倭嶺) 白洪鎮, 宋在星, 金鍾翼(以上 金泉) 金德律(義城) 金應泰(咸昌) 一委任狀 1名, 缺席 21名—등 參席下에 먼저 金永祚可會로 國民儀式이 있은다음 李斗榮委員長의 開會辭, 申醫務課長의 祝辭가 끝나자 經過報告에 들어가서 郭學台의 庶務部報告, 金鍾來의 財務部報告, 崔翔華의 資材部報告, 秋章輝의 事業部報告가 있었으며 新會員 郭甲植, 申基煥등 紹介를 마친後 委員改選에서 委員長, 副委員長을 無記名投票로 選出하고 庶務部外 3部委員은 新正副委員長의 諛衡選出이 있었는데 新委員은 다음과 같다.

△委員長 李斗榮, 副委員長 崔海雲, 同 白洪鎮 △庶務部 崔俊卿 △資材部 金鍾來, 秋章輝, 金永三 △財務部 崔翔華 △事業部 李源大, 金鏞泳, 具滋喆

兩雷같은 拍手裡에 新正副委員長의 就任人事가 있은 다음 委員長指名으로 議長에 崔海雲 就任하여 討議事項에 들어가 <中央會議建議件>을 上程, 李斗榮委員長으

로부터 서울市齒의 申寃書를 中心삼은 提案理由를 說明하고

金應泰—昨年 12月 30日 尙州郡廳火災로 나와 李鍾爽會員의 第 3 回齒科醫療用 金使用許證이 燒失되어 그 理由를 말하고 郡과 道로 連絡하여 再交付를 要請하였으나 中央廳에서 못주겠다함으로 再交涉하여 結局 받기는 받았으며 1g 6百50圓이라는 高價로 買入하였다.

金洛先—日帝時代보다 限地齒科醫師에 對한 當局의 差別이 甚하다. 나는 開業한지 14年이 되는데 限地는 一率으로 70g을 주었으니 納稅證明書類나 開業年數따위 提出은 無意味하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를 限地에게는 악작도 麻藥配給을 주지않으니 비록 限地라하여도 齒科에 있어서 麻藥이 不可缺한 것은 누구나 周知하는 바인데 齒科醫師에게는 주고 限地齒科醫師에게는 주지 않는 不當性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崔海雲—麻藥 뿐아니라 其他藥品을 藥局에서 高價로 購入하는 形便이니 厚生當局에 連絡하여 醫師, 齒科醫師의 差別없이 配給받도록 中央에 建議하자. 는 것을 滿場一致로 可決.

申醫務課長—從前에는 藥務課에서 醫師, 齒科醫師의 藥品配給을 取扱하였으나 앞으로는 醫務課에서 取扱하기로 되었다. 나는 就任한지 2週日밖에 안되었는데 앞날에 있어서 아는限度內에서 中央에 建議안해도 잘하겠다. 道에 들어와서 配給成績을 보니 모든 不平은 公平치 못한 配給에 起因된 것을 알았다. 그리고 一部醫師는 食糧, 雪櫃, 燃料등도 받았는데 이것은 配給받는 길을 몰라서 받지못한 醫師도 있었다. 먼저 말한 바와 같이 앞으로 힘자라는 데로 잘하겠다.

고 誠意를 披瀝하자 金永三 李斗榮등으로부터 <道當局者가 齒科에 페니시린이 무슨 所用되며 工業用鹽酸은 必要할지언정 다이아진이 무슨 所用이나 말한것과 外科에는 電氣가 必要하지만 齒科에도 電氣가 必要한가等 認識不足이 過度한말에 一驚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報告하여 滿場에 笑聲, 醫務課長도 <잘알았다>고 苦笑.

다음 豫算案審議에서 1人當會費(年) 2千4百圓에 依한 豫算案을 滿場拍手로 通過시키고 끝으로 金配給은 3等級(限地包含)으로 할 것. 等差를 甚하지 않게 할 것등을 可決하고 下午 6時 萬歲三唱裡에 閉會後 懇親宴이 있었다.

그런데 特記할 것은 이날 總會에 들어가기前에 慶尙北道齒科醫師會 事業部主催로 學術講演會를 開催하였는데 演士는 大邱東山病院齒科卞鍾秀, 慶北醫大齒科學教室李烈熙등이며 特別講演에 慶北醫大理化學教室金振東博士의 <비타민研究의 近況> 등으로 定期總會를 한층

더 빛나게 하였다.

□ 全南道齒定期總會 □

全羅南道齒科醫師會의 第4回定期總會는 1948年 5月 16日 上午 11時부터 木浦高女講堂에서 開催하여 金浚坤 司會로 開會를 宣言하고 愛國歌奉唱, 國旗敬禮, 默想 등 儀式이 있은다음 會員點名에서 過半數出席으로 總會 成立됨을 宣言하고 開會辭에 盧基燮委員長, 崔全南厚生局長과 李木浦副府尹의 來賓祝辭가 끝나後 議長選舉는 口頭呼薦으로 盧基燮委員長이 議長에 當選되었으며 이어 各部報告가 있은다음 即時討議事項에 들어가서 (가) 藥品配給에 關한件=A道 當局에 더욱 增量하여 달라고 要請하기로 可決, B藥品配給時에 推尋할 期限이 넘으면 各支部에서 自由處分하기로 決議하다. (나) 會費徵收件=會費를 完納치 않은 會員은 藥品機材品 其他配給을 中止하기로 滿場一致可決하다. (다) 豫算案通過. (라) 會則修正에 關한件=第42條에 對한 每年春秋 2期로 分하여 納付하기로 되었으나 一期分으로 納付하기로 修正하다. (마) 朝齒總會代議員派遣에 關한件=各支部에서 選出하여 派遣하기로 決定 (바) 其他事項=a濟州支部는 別道인故로 分離하기로 可決, b當局에서 配給品을 制當하였더라도 本會에 加入치 않으면 絕對配給하지 않기로 決議하고 끝으로 崔厚生局長의 先唱으로 萬歲三唱裡에 下午 2時半 閉會하였다. <全南道齒提供記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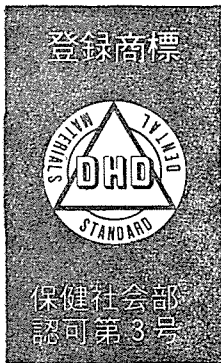
□ 京畿道齒定期總會 □

京畿道齒科醫師會의 第2回 定期總會는 1948年 5月 21日 下午 2時부터 仁川府錢洞 林榮均委員長自宅에서 來賓京畿道齒務係長 白洛水外 2名과 會員仁川支部林榮均 金錫永, 金遠澤, 朴容穆, 沈應澤, 李燦東, 明寅植, 李興治, 崔益鍾, 吳在德, 開城支部 吳廷龍, 柳邦燮. 水原支部 李昌鎔, 吳孝善, 閔榮俊, 甕津支部 朴嚴重, 延白

支部(委任狀)등 參席下에 먼저 崔庶務委員司會로 國民儀式이 있은다음 開會辭에 林委員長, 來賓祝辭에 崔曉峰朝鮮齒界編輯部長, 經過報告에 들어가서 庶務, 財務, 資材등 各部報告가 끝나자 各支部와 各委員間에 質疑應答이 있었으며 水原支部로부터 <代議員制를 撤廢하여 總會에 全會員이 參席케하자>는 緊急動議에 一部反對가 있어 討議한 結果 多數決로 이를 採擇한後 任員改選에서 舊任員의 重任을 可決하였는데 新任員은 다음과 같다.

委員長 林榮均, 副委員長 李東煥, 同 李昌鎔, △總務部 庶務 崔益鍾, 資材 吳在德, 調查 朴容穆, 企劃 沈應澤, △保健學術部 李燦東 △財務部 金遠澤 △常任委員 金錫永.

討議事項에 들어가 (가) 金其他資材配給에 關한 建議의件=林議長과 白齒務係長으로부터 道方針 即 金配給은 3等級程度가 適當하다고 생각한다는 意見이 있었으나 結局 限地齒科醫師를 除外한 <均一制>를 可決하고 齒材會社에 對한 不平不滿이 續出하는 가운데 <서울市齒의 申冤書>를 討議한 結果 總體的으로 支持할 수는 없으나 部分的으로 支持할 것을 採擇 (나) 醫療用金月末報告에 關한件=他道에 없는 例라고 그 不當性을 指摘하니 白齒務係長은 <某限齒의 不正事件으로 말미암아 實施하고 있는 것이며 不正事件을 未然에 防止하는 것이 目的이다. 여러분의 不平이 無理는 아니나 나의 立場으로도 不得已한 措置였다. 第4回金配給부터는 考慮할 생각이다>라고 그 苦衷를 말하자 <月末報告撤廢할것>을 建議하기로 可決. (다) 醫療報酬額의 件=7月부터 更新하게 되어 있으니 各支部에서 6月末까지 希望報酬額을 提示하라고 林議長要請하고 서울其他地方報酬額을 參考로 作成하기로 決定한뒤 下午 4時 20分 閉會 이어 庭園에서 懇親宴을 베풀었다 (끝).



齒科材料開發의 先驅者 D. H. D.

製造元: (株) 大韓齒材研究所

總販元: 協和興産株式會社 22-2725

→ 主要生産品目 ←

- | | | |
|----------------|---------------------|---------------|
| ① Zinc Cement | ④ Investment | ⑦ Carat Metal |
| ② Paraffin Wax | ⑤ D. H. Melot Metal | ⑧ Sheet Wax |
| ③ Inlay Wax | ⑥ Solder Metal | ⑨ Resin Teeth |

(本品를 購入하실때는 大韓齒材 (D. H. D.) Mark를 반드시 確認하시고 類似品과 混同을 避하시기 바랍니다.)